

GTX-A, 터널 내 탈선에도 안전하게 대처한다

- 18일 성남역 인근 터널 내 비상대응 2차 훈련… 탈선열차·시설 복구능력 배양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4월 18일(목) 새벽 2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-A) 성남역 인근 터널에서 열차 탈선사고를 가정한 유관기관*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.

* 국토교통부, GTX-A운영주, 한국철도공사, (주)SR, S그레일, 분당소방서, 철도특별사법경찰대,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국민참여단 20명 등이 참여

- 앞서, 열차 테러 대비 1차 훈련(3.20일, 수서역)에서 ‘승객 구조 및 대피 과정’을 집중 점검하였다.

- 이번 2차 훈련은 ‘탈선(가정) 차량 및 파손된 시설의 복구*를 위한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.

* (훈련 시나리오) 탈선된 차량을 레일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한 장비 이동(지제역→성남역), 레일/선로전환기/전차선 등 파손(가정)된 시설 복구 과정 등

- 철도안전감독관,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은 훈련열차와 터널입구 및 승강장 피난구역 등 주요 훈련 위치에서 훈련 진행 상황을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등 모니터링하였다.

- 국민참여단(20명)도 참여하여 대피 시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.

-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GTX가 도심도 터널로 연결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”면서,

- “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조상원 (044-201-4601)
		담당자	주무관	문성배 (044-201-4609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